

국교생 목졸리고 십자형 난자

현장에 있던 이모 한강서 익사체로

12일 밤 11시45분께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71-38 최영근(41·회사원)씨 집 안방 문 앞에서 최씨의 아들 윤석(9·국교3)군이 목이 졸리고 배에 20여곳의 십자가 모양 흉기 자국이 난 채 숨져 있는 것을 최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에 따르면 이날 귀가해보니 대문 앞에서 부인 이강순(36)씨가 울먹이며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이를 밀치고 들어가보니 아들

이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최씨는 당시 집안에 있던 최군의 이모 이은숙(25)씨가 “형부가 들어오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윤석이를 내일 아침까지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모 이씨는 최씨가 집안으로 들어간 직후 사라졌으며, 13일 0시께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하류 강물 7백m 지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최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직접사인은 경부질식으로 나타났으며 최군의 손발이 청테이프에 묶인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최군의 어머니와 이모 이씨가 종교에 지나치게 집착해왔다는 주변 진술에 따라 이씨가 모종의 종교의식을 치르다 최군을 숨지게 한 뒤 이를 비관해 자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지창은 기자

여동생 권투선수 오빠 살해
경마도박 밀천 요구에 분기

94.8.14

여동생이 가족을 괴롭히는 오빠를 살해하는 인륜을 저버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전 범접급 동양챔피언 김사왕(본명 김장주·36)씨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김씨의 이복 여동생 은복수(23·미용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이날 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허가 비닐집에서 김씨가 “경마에 걸 밀천을 내놓으라”며 자신을 마구 폭행하자 과도로 김씨의 배와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유강문 기자